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1.18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36.80원 (+0.30원)

KOSPI

4,968.48 (-132.02, -2.59%)

KOSDAQ

650.06(-15.59, -2.34%)

국고채 10년 금리

3.966(-0.01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퀀트	반도체 숨고르기, 다음 주도주는? [이경수]
미국산업재	[2027년 전망] 풍선 효과 : 데이터센터 규제에 따른 전력인프라·에너지 전망 [김시현]

기업분석

셀트리온	혼란한 시장 속에 듬직한 회사 [김선아]
케이엠더블유	호재 늘어나는 국면, 주가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김홍식]
아이에스동서	일회성 비용이 나타난 3분기, 건설 반등 시점 모색 [김승준]
대한해운	3Q26 Re: 장기 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중 [안도현]
이수페타시스	다시 좀 올라갈 때가 됐다 [김민경]

Monthly

2차전지	9월 ESS Battery : 북미 누적 +19% 성장 [김현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삼양식품, 이수페타시스, 팬오션, 효성티앤씨, 계룡건설, 케이엠더블유

하나증권

2026년 11월 18일 | Global Asset Research

2027년 퀀트 전망

반도체 숨고르기, 다음 주도주는?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변동성과 반도체 쏠림 이후 핵심 알파를 찾는 과정

- 반도체에 집중된 외인 매도의 핵심 원인은 MSCI 25% 캡임. 리뷰 직전 25% 초과폭이 클수록 리뷰월과 다음 달에 외국인 매도가
커졌음(상관계수 −0.41, 리뷰 53회). 리뷰가 없는 달에는 이 관계가 사라짐(−0.03).

- 캡 매도 피크. 2월 삼성전자 −2.5조원, 5월 SK하이닉스 −6.0조원 이후 8월 리뷰에서는 매수로 돌아섰고, 11월 리뷰는 거의 중립.

- 패시브 외 요인도 있는데, 1) ROE가 크게 흔들려 온 종목일수록 PBR이 낮고 2) 태생적으로 한국 이익증가율 고점 국면에서 외국인은 매도함. 두 종목 이익 YoY가 +50%를 넘은 달의 평균 외인 순매수강도는 −24.8bp.

- 밸류에이션·수급 지표는 역사적 극단에 가까움: PBR 0.94배, 배당수익률 3.35%, 외국인 12개월 누적 −5.56%, 고점 대비 −40.8%.

- 변동성(18.0%)은 역대 최고임. 변동성 극단 뒤 1개월 코스피가 오른 경우는 7번 중 3번(43%)으로 지표 중 가장 약함에 주목.

- VIX 고점 통과 후 3개월 동안 17번 중 14번 순매수였고, HY 스프레드 60일 변화와 외국인 순매수의 상관계수는 −0.58.

- 다만 지금은 PER 3.5배 구간임. 싼 구간에서는 VIX가 오르는 중에 산 경우 12개월 승률이 91%로, VIX가 내린 뒤 산 경우(57%)보다 높음. 공포가 지나기를 기다리면 늦는다는 것. 공포 때 매수할 종목군을 잘 추리는게 회복 탄력성의 근원.

- 변동성을 끝낼 이벤트는 앤트로픽 상장. 나스닥100 편입은 12월 11일 전후로 예상. 스페이스X 경로를 따르면 나스닥 변동성은 12월 초 고점 예상.

- 반도체가 코스피를 크게 앞선 뒤에는 종목 장세가 약했음. 그래서 반도체 언더퍼폼은 종목 장세에 우호적인 조건임.

- 변동성 완화 직후 만연한 종목 장세는 6번 중 2번로 확률이 낮음. 대신 이익 상향 + 기관 빈집 + 개인 순매수 조합은 변동성·쏠림
정점의 직후(1~3개월)와 그 뒤(4~12개월) 모두에서 24번 중 24번 성과로 승률 100%.

- 한편 반도체 초과 캡 쏠림이 완화된 달에 시총 3~10위는 코스피를 월평균 +1.2%p 앞섰음(38번 중 25번).

- 위 핵심 스타일에 시총 5조원 이상에서 시총이 클수록 가점. 상위는 LS ELECTRIC, 삼성전기가 핵심 타겟 종목으로 판단.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권준형 junhyeongkwon@hanafn.com

2026년 11월 1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셀트리온 (068270)

혼란한 시장 속에 듬직한 회사

BUY (신규)

목표주가(12M)	310,000원
현재주가(11.17)	2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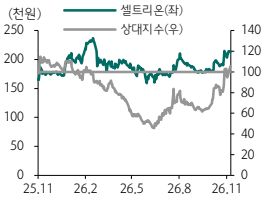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968.48
52주 최고/최저(원)	236,862/159,400
시가총액(십억원)	49,443.5
시가총액비중(%)	1.21
발행주식수(천주)	232,129.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81.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2.9
외국인지분율(%)	25.67
주요주주 지분율(%)	
셀트리온홀딩스 외 96 인	32.90
국민연금공단	7.2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751.3	6,736.1
영업이익(십억원)	1,903.4	2,394.4
순이익(십억원)	1,444.6	1,929.3
EPS(원)	6,141	8,179
BPS(원)	80,913	88,32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57.3	4,162.5	5,847.8	7,069.9
영업이익	492.0	1,168.5	1,893.9	2,378.6
세전이익	576.1	1,153.7	1,574.4	2,338.1
순이익	422.7	1,029.6	1,249.1	1,841.5
EPS	1,703	4,238	5,316	7,933
증감율	(46.56)	148.85	25.44	49.23
PER	101.08	40.71	40.07	26.85
PBR	2.18	2.16	2.58	2.37
EV/EBITDA	46.04	30.53	22.77	18.20
ROE	2.46	5.94	7.01	9.55
BPS	78,864	80,029	82,615	89,849
DPS	657	715	715	715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3Q26까지 약속한 성장세 보이는 중, 미국 매출 상승세 뚜렷

연결기준 3Q26 매출액은 1조 5,755억원(YoY+53%, QoQ+13%), 영업이익 5,253억원(YoY+74%, QoQ+16%, OPM33%)을 기록하였다. 신규 출시된 5개의 제품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이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아직 인수에 따른 상각비 때문에 이익 기여도는 없지만 올해부터 발생한 Eli Lilly향 CMO 매출도 올해 증가한 매출액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의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액 5.3조원(YoY+28%), 영업이익 1.8조원(YoY+52%) 달성인데, 우리가 추정한 2026년 연 매출액은 5.85조원(YoY+40.5%), 영업이익 1.9조원(YoY+62.1%)으로 가이던스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의 실적 성장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의 직판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이를 신규 출시 제품이 견인하고 있어 향후 상업화 제품이 추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7년 미국에서 다시 거세게 논의될 메디케이드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어 기존의 민주당이 밀어 붙이던 약가 인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철회, 의료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라 그 자체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보다 예산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써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거나,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전망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실현이 되느냐 보다, 적어도 '27년 한 해는 이 주제가 자주 화두에 오를 것이란 게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를 넓히려면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권장할 수 밖에 없고,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높은 기업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입지를 다지며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사에 대한 관심을 내년에도 이어가야 한다.

커버리지 개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1만원

'27년 EBITDA에 WACC 10.4%를 적용하여 현가화 한 후, target EV/EBITDA 배수 29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산출하였다. 4Q26을 포함해 '27년의 매출 증가는 미국 신규 제품의 매출이 중요할 전망이다. '27년 동사가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요인 중에 미국 민주당의 메디케이드 확대 시도가 중요한 만큼, 미국에서 동사의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높다는 것을 매 분기 실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면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 '26년부터 미국 브랜치버그 공장 인수에 따른 CMO 매출이 발생하여 바이오시밀러 외 사업의 체급도 커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

2026년 11월 1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케이엠더블유 (032500)

호재 늘어나는 국면, 주가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11.17)	19,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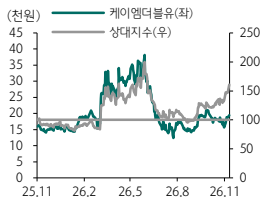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650.06
52주 최고/최저(원)	38,200/12,360
시가총액(십억원)	826.9
시가총액비중(%)	0.22
발행주식수(천주)	42,19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8.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6
외국인지분율(%)	5.45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 인	30.4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4.3	274.4
영업이익(십억원)	(19.4)	53.7
순이익(십억원)	(25.8)	50.7
EPS(원)	(615)	1,200
BPS(원)	2,954	4,15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4	97.5	97.3	367.6
영업이익	(45.5)	(23.8)	(21.2)	100.5
세전이익	(37.4)	(30.4)	(30.6)	103.3
순이익	(38.6)	(27.0)	(30.8)	103.3
EPS	(969)	(672)	(734)	2,448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9.06)	(21.43)	(26.53)	7.95
PBR	2.43	4.48	5.90	3.39
EV/EBITDA	(11.15)	(43.91)	(70.49)	7.43
ROE	(24.24)	(19.66)	(22.74)	54.14
BPS	3,607	3,211	3,298	5,746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TP 7만원 유지, 통신장비 업종 탑픽 제시, 2027년으로 시각 이동해야

KMW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0,000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국내 통신 장비 업종 내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미국 시장 5G 투자 지연 가능성 낮고, 2) 2027년 국내 주파수 경매 가능성 높아지고 있으며, 3) 스페이스X의 기지국 투자 가능성이 고조되는 양상이고, 4) 3분기 실적 발표를 끝으로 대다수 악재가 소멸되는 가운데 발생될 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5) 이론적 창출 매출액 대비 가격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7년 미국 시장 성장 기대감 확산, 국내 시장 개화 가능성은 보너스

어퍼 C밴드 주파수 클렌징 이슈로 미국 시장 투자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2020~2021년 미국 로우 C밴드 경매 당시를 회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시에도 똑같이 주파수 클렌징 이슈가 있었지만 2021~2022년 미국 통신사 CAPEX가 급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들은 주파수 낙찰을 받으면 경매 대금을 수개월내 내야 하며, 위성 방송 사업자들은 이전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클렌징 작업을 마쳐야 한다. 2030년이 데드라인이지만 당연히 조속한 사용 주파수 이전이 예상되며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 사용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낙찰 금액이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라 당연히 조기 망구축, 상용 서비스 개시가 예상된다. 아직은 투자가들의 관심이 낮은 국내 시장도 2027년 경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5G 주파수 사용 폭이 300MHZ로 미국/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OBBBA 법안과 FCC 계획을 감안하면 2029년 미국 5G 총 주파수는 1,400MHz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향후 일부 LTE 주파수를 5G로 전환한다고 해도 국내 5G 총 주파수는 500MHz도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3.7GHz 300MHz 신규 할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KMW는 삼성/노키아를 통해 미국과 국내에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2027년 미국/국내 5G SA 시장 개화에 따른 큰 수혜가 예상된다.

전략상 12월 전 매수 유망 평가, 향후 이벤트 발생 시점에 집중해야

2027년 4월 미국에서 어퍼 C밴드 경매가 시작되며 그 이후에도 추가로 2029년까지 600MHz가 할당될 예정이다. 국내는 최근 뉴스를 감안하면 2026년 12월 AI 네트워크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파수 경매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시장이 열린다면 KMW의 수혜는 당연할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도 삼성/에릭슨을 통해 적지 않은 M/S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으며 국내 시장 개화 기대감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기대감이 올라오기 전 매수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2026년 11월 1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아이에스동서 (010780)

일회성 비용이 나타난 3분기, 건설 반등 시점 모색

BUY (유지)

목표주가(12M)	19,000원(하향)
현재주가(11.17)	13,48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968.48
52주 최고/최저(원)	33,450/13,480
시가총액(십억원)	400.7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29,724.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0.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
외국인지분율(%)	7.10
주요주주 지분율(%)	
아이에스지주 외 6 인	56.7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152.9	1,386.5
영업이익(십억원)	175.0	166.7
순이익(십억원)	175.9	89.5
EPS(원)	5,720	2,614
BPS(원)	48,143	50,32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514.6	1,234.4	1,093.5	1,156.0
영업이익	169.7	68.1	139.5	120.8
세전이익	(160.2)	(74.1)	191.0	68.9
순이익	(148.7)	(53.8)	143.8	49.6
EPS	(4,910)	(1,782)	4,791	1,669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65.16)
PER	(4.26)	(13.10)	2.92	8.39
PBR	0.46	0.56	0.30	0.29
EV/EBITDA	8.64	17.37	7.03	9.01
ROE	(10.19)	(4.13)	10.96	3.55
BPS	45,312	41,546	46,739	47,919
DPS	1,000	500	500	5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3Q26 잠정실적: 컨센서스 하회

3Q26 매출액 2,800억원(+3.3%yoy), 영업이익 15억원(-83.4%yoy)으로 시장 추정치(240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하회의 배경은 건설과 폐배터리 부문이다. 건설은 덕은에서 평가손실 71억원이 원가에 반영되었으며, 울산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현장이 실행예산 확정 전으로 원가율 100%로 인식된 영향이다. 실행예산 확정 시 이익은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경산 펜타힐즈 W 1차는 분양률 약 37%이며, 이에 따라 수주로 6,015억원이 인식됐다. 3분기 누적 진행률은 3.1%로 3분기에 약 180억원의 매출액이 인식됐다. 1차 중도금은 27년 3월 예정으로, 분양이 올라오는 만큼 추가로 수주 인식될 예정이다. 폐배터리는 메탈 가격 하락 및 환율 하락 영향이 있었으며, 상반기 매입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72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콘크리트 부분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PC 부문에서 정산이익 70억원이 반영됐다. PC는 신규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나, 캐파 초과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꽉 찼으며, 내년 하반기 물량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폐기물은 특이사항 없이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4Q26 실적 추정: 매출액 2,627억원, 영업이익 196억원(OPM 7.5%)

4Q26 매출액 2,627억원(-20.2%yoy), 영업이익 148억원(흑자전환%yoy)으로 추정한다. 건설부문 매출액 300억원, OPM 7%로 추정했다. 경산 1차와 울산 그랑라크의 매출액 인식만 진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3분기 나타난 정산이익을 제외하고, 4분기 출하량이 늘어날 것을 일부 반영하여 추정했다. 폐배터리는 소재 가격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3분기 일회성을 제거했을 때의 마진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9,000원으로 하향

아이에스동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19,0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2028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5.0배를 적용했다. PBR 0.4배를 적용한 것과 같다. 경산 펜타힐즈 1차의 분양률이 37% 수준인 것과 2차의 분양 일정이 밀릴 것을 감안하여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아이에스동서의 주가 반등할 시점은 결국 경산 1차의 분양률 반등 여부다. 내년 3월까지 분양률이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 27~29년의 매출액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분양률 추이에 따라 2차 흥행 여부 또한 확인 가능하다. 분양률에 따라 목표주가 상향 여지가 남아있으며, 매월 경산의 미분양 추이를 확인하며 매수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18일 | 기업분석

대한해운 (005880)

3Q26 Re: 장기 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중

BUY (유지)

목표주가(12M)	2,500원
현재주가(11.17)	1,90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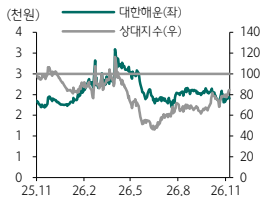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968.48
52주 최고/최저(원)	3,090/1,680
시가총액(십억원)	615.2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322,747.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09.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3
외국인지분율(%)	12.60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엠상선 외 2 인	49.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51.8	1,263.4
영업이익(십억원)	258.6	255.6
순이익(십억원)	191.0	173.4
EPS(원)	597	541
BPS(원)	7,444	7,97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47.2	1,277.0	1,289.8	1,324.3
영업이익	328.6	207.2	255.8	234.3
세전이익	173.6	185.0	216.9	204.6
순이익	162.1	180.2	212.7	200.7
EPS	507	559	659	622
증감율	136.92	10.26	17.89	(5.61)
PER	3.30	3.14	2.89	3.06
PBR	0.27	0.26	0.26	0.24
EV/EBITDA	5.04	5.38	5.14	4.83
ROE	8.93	8.63	9.40	8.12
BPS	6,289	6,684	7,343	7,965
DPS	0	0	0	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3분기 영업이익 588억원(-1%, OPM 17.2%)

대한해운의 3분기 매출액은 8% (YoY) 증가한 3,425억원, 영업이익은 1% 감소한 588억원 (영업이익률 17.2% (-1.5%p))을 기록했다. 본업인 해운 부문은 시황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익 모두 증가했으나, 주택분양 매출액/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LNG선은 전부 장기계약으로 이익이 YoY/QoQ 큰 변동이 없으나, 벌크선/탱커선 영업이익이 각각 23%/165% (YoY) 증가하면서 전쟁 이후의 운임 호황을 반영했다. 다만 대한해운 해운 매출의 70% 이상이 장기운송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팟 시황 호조 대비로는 실적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0% (YoY) 증가한 472억원이었는데, 부채비율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장기계약 수요가 늘어나는 배경

대한해운은 최근 공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의 장기대선계약(5년 4개월)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4분기부터는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의 연간 매출액 기여도는 약 14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Zhejiang Shipping과의 벌크선 장기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해운 시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초장기계약보다는 3~5년간의 장기운송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대한해운에게도 신규 계약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2027년에도 탱커/PCC 위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할 LNG선대에 대한 장기 운송 계약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이다. 대한해운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된 LNG 전용선을 8척 보유하는 등, 트랙 레코드가 탄탄한 선사 중 한곳이다.

2027년 벌크 시황도 좋다, 결국 주주환원이 주가 트리거

중동 전쟁이 2026년 재고 축적 수요를 촉발하며 전반적인 해운 운임 상승을 야기했으나, 2027년에도 벌크선은 2026년 대비로는 낮으나 견조한 운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벌크선의 중고선가가 신조선가 대비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BDI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황은 우호적이나 주가 트리거는 주주환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안정적 수익력과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P/B는 0.2배 대에 불과하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500원을 유지한다.

2026년 11월 1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이수페타시스 (007660)

다시 좀 올라갈 때가 됐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0원(하향)
현재주가(11.16) 8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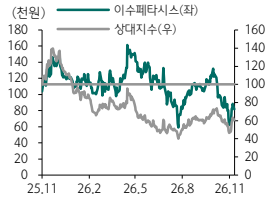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100.50
52주 최고/최저(원)	161,400/59,200
시가총액(십억원)	5,982.9
시가총액비중(%)	0.14
발행주식수(천주)	73,409.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42.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6.4
외국인지분율(%)	15.48
주요주주 지분율(%)	
이수 외 5 인	26.13
국민연금공단	10.0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24.7	2,286.1
영업이익(십억원)	349.3	540.6
순이익(십억원)	274.5	427.8
EPS(원)	3,740	5,828
BPS(원)	13,825	19,37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36.9	1,088.0	1,586.2	2,348.7
영업이익	101.9	204.7	359.9	634.0
세전이익	91.8	201.7	341.9	625.1
순이익	74.0	160.5	266.7	487.6
EPS	1,116	2,257	3,634	6,642
증감율	55.22	102.24	61.01	82.77
PER	23.83	52.81	22.43	12.27
PBR	5.39	11.58	5.89	4.03
EV/EBITDA	15.10	36.93	14.63	8.30
ROE	24.91	29.64	30.12	38.97
BPS	4,938	10,292	13,836	20,248
DPS	143	230	230	23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3Q26 Review: 판가와 믹스가 만든 수익성 서프라이즈

2026년 3분기 연결 매출 3,892억원(YoY +31%, QoQ +2%), 영업이익 949억원(YoY +63%, QoQ +23%, OPM 24.4%)을 기록했다. 페타시스가 전사 실적을 견인했는데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단계적 판가 인상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달러 기준 본사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12% 증가했다. 후난법인 매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했으며, 영업이익은 10% 감소했다. 판가 인상으로 Blended ASP는 전분기대비 8% 상승했으나, 일부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이 지연되며 수익성이 하락했다. 4분기에는 추가 판가 인상이 반영되며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P와 Q의 동반성장 구간 재진입

다중적층 MLB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늘면서 3분기 말 수주잔고는 7,84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6% 증가했다. 수주잔고 내 다중적층 MLB 비중은 1분기 11%, 2분기 23%에서 3분기 33%까지 상승했다. 4분기부터 다수 고객사의 다중적층 MLB가 초도 양산에 들어가면서, 수주 단계에서 확인된 믹스 개선이 매출과 평균판매단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후난법인의 북미 고객사 수주도 전분기대비 17% 증가했다. 4분기에는 20~30층 MLB 초도 양산을 시작하고, VIPPO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고사양 스위치용 MLB 공급을 늘릴 전망이다. 페타시스 월 생산능력은 하반기부터 1,2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2027년 1분기에는 1,5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중적층 MLB 비중 확대에 따른 ASP 상승과 증설에 따른 출하량 증가가 겹치며 실적 성장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오래 쉬었으니 다시 갈 때가 되었다

동종 Peer 그룹의 주가하락에 따른 멀티플 조정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2027년 예상 EPS에 지난 5년간 평균 PER을 적용했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32%로 전기전자 업종 수익률을 대폭 하회하고 있다. 다중적층 MLB의 유의미한 매출 비중 확대와 추가 증설 효과로 인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주요 고객사의 자체 가속기 외부 판매 확대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는 HDI 전용공장(7공장) 투자를 통해 고객사 내 높은 점유율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9월 ESS Battery : 북미 누적 +19% 성장



2026년 9월 ESS Data in detail | 2026.11.18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김희제

지역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지역	Grid		BTM		Total			Grid		BTM		Total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설치량	YoY
9월	글로벌	24.3	89.6	8.6	57.5	32.9	80.0	누적 (1-9월)	209.6	45.1	69.7	53.5	279.3	47.1
	북미	4.1	-1.8	0.9	29.6	5.0	2.8		42.0	17.5	8.6	30.0	50.6	19.4
	유럽	3.1	95.3	2.2	128.5	5.3	107.9		21.9	180.9	15.1	118.7	37.0	151.7
	중국	12.6	125.6	2.6	6.9	15.2	89.9		87.6	10.4	21.7	12.1	109.3	10.7
	기타	4.5	203.8	2.9	111.5	7.4	159.5		58.1	169.5	24.4	94.1	82.5	141.7

자료: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하나증권

주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고객 측에 위치한 분산 에너지 자원. 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시설 내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이 해당. 발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FTM(Front The Meter)과 대비되는 개념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 유형별 ESS 배터리 신규 설치량

(단위: GWh, %)

	연계 유형	설치량(GWh)	YoY(%)		설치량(GWh)	YoY(%)
9월	Stand-alone	18.8	90.9	누적 (1-9월)	152.3	60.4
	Wind+Solar	-	-100.0		3.7	-57.6
	Wind	0.5	-26.8		4.4	-52.5
	Solar	5.0	245.1		47.6	62.7
	기타	-	-100.0		1.7	-28.4

자료: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하나증권

글로벌 ESS 케미스트리별 신규 설치 비중

케미스트리

- 글로벌 9월 ESS 케미스트리별 비중은 LFP 91.0%(MoM -3.1%p), NCM 3.3%(MoM 0.5%p), Flow Battery 0.7%(MoM 0.1%p), Sodium based 0.8%(MoM 0.5%p), 기타 4.2%(MoM 2.1%p)

시사점 및 의견: 북미 ESS, 자본 유입과 수주 동시 확대

- 9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Grid+BTM)은 32.9GWh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2026년 누적(1~9월) 기준으로는 279.3GWh의 신규 ESS가 설치되며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월별 설치량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감안하면 누적 성장률 흐름이 중요한데, 40%를 상회하는 고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ESS 출하량의 전월 데이터 사후 수정 폭이 매우 커, 이를 반영하여 9월 데이터는 11월 발간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또한 동일한 시차를 두고 발간 예정).
- 신규 설치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력망(Grid) ESS의 경우, 9월 24.3GWh(YoY +90%)가 신규 설치됐다. 2026년 누적(1~9월) 글로벌 Grid ESS 설치량은 209.6GWh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9월 북미 Grid ESS 설치량은 4.1GWh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나, 누적 성장률 기준 17% 성장률을 기록했다. 월간 감소 폭이 작아 유의미한 흐름의 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동기간 유럽은 3.1GWh, 누적 21.9GWh의 Grid ESS가 신규 설치되며 월간 및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18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 설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전체 ESS 설치량 중 25%를 차지하는 BTM(Behind The Meter) 시장에서는 9월 글로벌 기준 8.6GWh(YoY +58%)의 ESS가 신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9월 북미 BTM 설치량 YoY +30%, 누적 YoY +30%). 데이터센터 및 상업·산업용(C&I) 전력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BTM 시장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전력망(Grid) 시장 내 연계유형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전력 상황에 따라 충·방전을 수행하는 독립형 BESS(Stand-alone BESS)가 9월 18.8GWh 규모로 신규 설치되며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독립형의 누적 기준 설치량은 152.3GWh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다.
- 한편, 지난 11월 4일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기관(NBIM)은 북미 ESS 개발·운영 기업 아이파파워(Aypa Power)의 지분 10%를 3억달러에 인수하며 처음으로 ESS에 직접 투자했다. 북미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ESS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미국 ESS 업계 목표 2032년 말 누적 설치 225GW, 출력 기준), 북미 ESS 프로젝트로의 자본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배터리 공급 계약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16일 미국 ESS 개발사 주피터파워(Jupiter Power)와 16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2029년부터 3년간 공급)을 체결했다. ESS 개발사가 2029년 이후 물량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북미 ESS 중장기 수요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 유입과 장기 공급 계약이 함께 늘고 있는 데다 북미 시장의 비중국산 배터리 수요도 높아,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한 국내 셀 메이커의 ESS 수주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관련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96,800	-4.47%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SK텔레콤 (017670.KS)	11/16	83,900	83,900	0.00%	• 가입자 유치 정상화 및 마케팅 비용 안정화에 힘입어 2026년 영업이익 1.95조원 기대 • 비과세 배당 시행에 따른 수급 개선과 앤트로픽 상장 가치 부각으로 재평가 기대
현대글로비스 (086280.KS)	11/16	204,500	207,000	1.22%	• 중국발 고운임 비계열 물량 확대와 유류할증료 반영으로 3분기 해운 부문 수익성 개선 • 고마진 비계열·High&Heavy 화물 비중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11/16	1,210,000	1,285,000	6.20%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이수페타시스 (007660.KS)	11/16	88,500	81,500	-7.91%	•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다층 MLB 기판 수요 증가 기대 • 고부가 AI 가속기·네트워크 장비용 제품 비중 확대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기대
팬오션 (028670.KS)	11/16	4,990	5,050	1.20%	• 해상 운임 상승과 벌크선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3Q 영업이익 1,974억원(YoY +58%) 기록 • 신규 배당정책 발표 및 에너지 스팟 계약 비중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효성티앤씨 (298020.KS)	11/16	303,000	298,500	-1.49%	• 중국 스판덱스 공급과잉 완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업황 회복과 판가 인상으로 호실적 기대 • 유가 변동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구조와 낮은 밸류에이션에 투자 매력 부각
계룡건설 (013580.KS)	11/16	27,100	25,600	-5.54%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11/16	151,300	131,700	-12.95%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19,470	4.12%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6%	+1.63%p	+71.10%	+36.7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96,800	-4.47%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11/16	151,300	131,700	-12.95%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19,470	4.12%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GS건설 (006360.KS)	11/9	29,750	31,200	4.87%	• GS그룹 동해 AI 데이터센터 1.2GW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성장동력 확보 기대 • 연간 분양 물량 1.7만 세대 달성 기대에 힘입어 2027년 실적 개선 본격화 기대
SK가스 (018670.KS)	11/9	234,000	235,000	0.43%	• 동절기 아시아·유럽 LNG 가격 상승에 따른 LNG-LPG 스프레드 확대 수혜 기대 • 파생상품 평가이익 및 트레이딩 수익 확대에 힘입어 연간 순이익 사상 최대치 달성 기대
코스맥스 (192820.KS)	11/2	247,000	285,000	15.38%	•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로 3분기 호실적 전망 • 미국 법인 흑자전환과 동남아 사업 턴어라운드, 중국 매출 회복으로 ODM 경쟁력 강화
계룡건설 (013580.KS)	11/2	22,250	25,600	15.06%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SK바이오팜 (326030.KS)	10/26	76,900	88,500	15.08%	• 엑스코프리 판매국 확대에 따른 로열티·원료의약품 매출 성장 기대 • 오파칼림 임상 재개 시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10/19	1,229,000	1,285,000	4.56%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한미약품 (128940.KS)	10/19	397,500	446,500	12.33%	• 로수젯 등 주력 제품 성장과 북경한미·한미정밀화학 실적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기대 •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와 차세대 비만치료제 임상 진전이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
티에프이 (425420.KQ)	10/19	62,900	82,600	31.32%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4.50%	+13.02%p	+25.48%	-8.9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AI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3,350	-17.6%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HANARO 미국 에이전틱AI TOP2+ (0227L0)	2026.09.22	10,655	9,300	-12.7%	• 에이전틱 AI 밸류체인 중 모델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상위 TOP2 종목을 각각 25%씩 편입하는 집중된 구조 • - 9월 초 공개된 메타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흥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전틱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AI 모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26,480	-10.4%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830	-3.3%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4,120	-31.2%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ISE 미국AI클라우드 인프라 (0127R0)	2026.09.22	16,720	9,750	-41.7%	• 미국 상장 네오클라우드 4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6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네오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전력, 광통신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것이 특징 • AI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동반 수혜 기대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28,225	-23.4%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7,365	-26.2%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0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71.28	-19.4%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486.75	49.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FTXL (미국 반도체 퀄리티)	2026.09.22	247.92	201.37	-18.8%	•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이익, ROA, 모멘텀, 현금흐름 등 펀더멘털 및 주가 흐름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 •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서,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5.04	2.1%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3.93	11.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NCLD (AI 컴퓨팅 인프라)	2026.09.22	24.84	13.61	-45.2%	•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고효율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60.29	-12.2%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0.55	-3.6%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일본 3분기 GDP P (-0.1%, 이전치 1.4%) ▪중국 10월 소매판매 (0.4%, 이전치 1.1%) ▪중국 10월 광공업생산 (4.8%, 이전치 5.5%) ▪중국 10월 고정자산 (-8.1%, 이전치 -7.2%) ▪일본 10월 광공업생산 (1.7%, 이전치 1.9%)	▪영국 9월 ILO 실업률 (E 4.7%, 이전치 4.7%) ▪독일 11월 ZEW 서베이 (E 28.7, 이전치 28.1) ▪미국 10월 소매 판매 (E 0.2%, 이전치 0.8%)	▪영국 10월 CPI (E 3.6%, 이전치 3.5%) ▪유로존 10월 CPI (E 4.0%, 이전치 4.0%)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E 4.4%, 이전치 -5.2%)	▪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 (E 1.5%, 이전치 18.6%)	▪한국 10월 PPI (E 7.3%, 이전치 7.7%) ▪일본 10월 CPI (E 2.5%, 이전치 2.1%) ▪중국 11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유로존 11월 소비자기대지수 (E -18.1, 이전치 -17.9)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E 53.3, 이전치 48)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독일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2) ▪독일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5)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7) ▪유로존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8) ▪미국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9) ▪미국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6.1)	▪일본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3) ▪일본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독일 11월 IFO 예상 (E --, 이전치 91.6)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3%)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 이전치 91.7) ▪미국 10월 개인소득 (E --, 이전치 0.2%)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1.9%)	▪한국 11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0%) ▪독일 12월 Gfk 소비자기대지수 (E --, 이전치 -30.8)	▪중국 11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4.4%) ▪미국 10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0.7%)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